

주간 전남 농업

VOL. 262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12월 둘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겨울철 닭, 온도와 환기 관리가 중요해
정책동향 및 홍보 연말연시 전남 축산물 유통 안전 강화
전남 시군 농정 동향 화순군, 2일부터 2019년 '농민수당' 지급



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나눔 행사 가져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n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3~-1도, 최고기온 : 6~8도)보다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0~1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배추, 무
- ▶ 당근, 양배추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5

- ▶ 겨울철 닭, 온도와 환기 관리가 중요해
- ▶ 지역특화작물 ‘여수 돌산갓’, 종 다양성 확보 기술 개발
- ▶ 기상재해 강한 6미터 높이의 새 온실 모델 개발



5.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19

- ▶ 연말연시 전남 축산물 유통 안전 강화
- ▶ 종자 가공처리기술 국산화로 종자 부가가치 향상
- ▶ 태풍 피해버 매입량 늘어 쌀값 인상 견인
- ▶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수출 다변화 온힘
- ▶ 참다래 품종 구별, 이파리 한 장이면 충분해요
- ▶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로 오이 품종 육성 기간 단축
- ▶ 한국산 유제품, 베트남 소비자 만족도 높아
- ▶ 농촌진흥청,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활성화 노력
- ▶ 농촌진흥청장,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농장 방문
- ▶ 축산농장 관리, '똑똑한 농장 축사로'에서 하세요
- ▶ 농촌진흥청, 올해 농업 재해대응 분야 성과 점검
- ▶ 귀리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치료에 효과 있다
- ▶ 전남도,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이해도 높여
- ▶ 전남도, 2020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신청하세요
- ▶ 전김영록 지사, 고병원성 AI 중점방역대책 점검
- ▶ 동물위생시험소, AI 차단방역 강화
- ▶ 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나눔 행사 가져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9

- ▶ 화순군, 2일부터 2019년 ‘농민수당’ 지급
- ▶ 화순군, ‘귀농귀촌 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 ▶ 영암군, 축산농가 퇴비 부속도검사 의무화 홍보 박차
- ▶ 영암군, 2020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 ▶ 무안군, 2019 힐링푸드 실용화 교육 개강
- ▶ 장성군, “벼 정부보급종 종자, 20일까지 신청하세요”
- ▶ 완도군,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에 힘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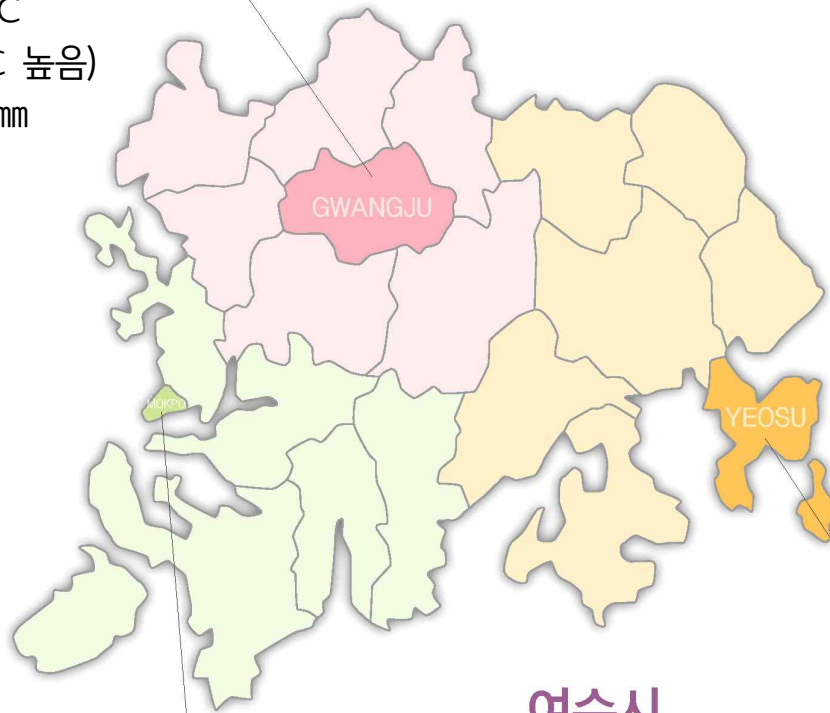
7. 농식품 빅데이터(재배기술)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8

- ▶ 농촌진흥청
- ▶ 농사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6.7℃
(평년대비 3.2℃ 높음)
- 최고기온 : 11.6℃
(평년대비 3.3℃ 높음)
- 최저기온 : 1.9℃
(평년대비 2.3℃ 높음)
- 강 수 량 : 1.0mm



목포시

- 평균기온 : 6.9℃
(평년대비 2.1℃ 높음)
- 최고기온 : 10.4℃
(평년대비 1.2℃ 높음)
- 최저기온 : 3.3℃
(평년대비 2.0℃ 높음)
- 강 수 량 : 0.9mm

여수시

- 평균기온 : 7.5℃
(평년대비 2.0℃ 높음)
- 최고기온 : 12.4℃
(평년대비 3.1℃ 높음)
- 최저기온 : 2.6℃
(평년대비 0.3℃ 높음)
- 강 수 량 : 0.6mm

12월~내년 2월 출하량 평년보다 감소



차기작형 재배의향

내년 시설 봄배추·무 재배의향 평년보다 증가

	배추	무	당근	양배추
금년 대비	8% ↑	51% ↑	9% ↑	8% ↑
평년 대비	3% ↑	1% ↑	10% ↑	0.4% ↑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추

출하 전망 : 12월~내년 1월 출하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12월 출하량은 가을 및 겨울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4%, 18% 감소할 전망이다.
- 12월 겨울배추 출하면적 감소폭은 조기 출하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폭(전년 대비 12% 감소)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 1월 출하량은 겨울배추 출하면적 및 단수 감소로 금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7%, 8%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태풍 피해가 컸던 가을배추 출하가 마무리되고, 겨울배추가 주 출하되는 내년 1월의 평년 대비 출하량 감소폭은 축소될 예정이다.

가격 전망 : 12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을 전망

- 12월상품 10kg(3포기)당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3,690원) 및 평년(4,260원)보다 높은 7,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순별 가격은 김장 수요 감소와 겨울배추 출하 시작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 1월 가격도 출하량 감소로 금년(2,840원) 및 평년(4,77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

출하 전망 : 12월~내년 1월 출하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12월 출하량은 가을무 및 월동무 출하량이 적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2%, 34% 감소할 전망이다.
- 내년 1월 출하량은 가을 저장무가 증가하나, 월동무 출하량이 감소하여 금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1%,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2월~내년 1월 월동무 출하량 감소율은 초기 출하가 원활하지 못하여 생산량 감소폭(전년 대비 26% 감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전망 : 12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2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7,540원) 및 평년(8,430원)보다 높은 20,000원/20kg 내외로 전망된다.
- 내년 1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금년(7,440원)과 평년(9,21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월동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이전인 2월에도 금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당근

출하 전망 : 12월~내년 1월 출하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12월 가을 및 겨울당근 출하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 19% 적겠으며, 전체 출하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6%,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1월 겨울당근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금년과 평년보다 각각 21%, 35%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전망 : 12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을 전망

- 12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29,250원) 및 평년(22,030원)보다 높은 47,000원/20kg 내외로 전망된다.
- 내년 1월 가격도 출하량 감소로 전년(24,850원) 및 평년(20,77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배추

출하 전망 : 12월~내년 1월 출하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12월 가을 및 겨울양배추 출하량은 전년보다 각각 7%, 26% 적겠으며, 전체 출하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9%,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 1월 겨울양배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1%, 7% 적을 전망이다.

가격 전망 : 12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을 전망

- 12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4,290원)과 평년(5,110원)보다 높은 9,500원/8kg 내외로 전망된다.
- 내년 1월 가격도 출하량 감소로 전년(4,170원)과 평년(5,38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12. 09. 기준 / 단위 :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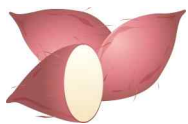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20kg	46,960	47,160	↓ 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300	49,380	39,100	↑ 20.1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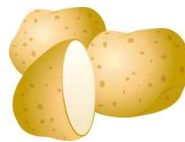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35kg	181,400	183,400	↓ 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0,000	188,000	165,667	↑ 9.5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0kg	25,600	25,400	↓ 29.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300	36,450	25,077	↑ 2.1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20kg	22,200	22,600	↓ 5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825	45,050	34,387	↓ 35.4

채소류

배추(가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20kg	10,200	9,600	↑ 5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900	6,800	5,753	↑ 77.3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35kg	10,600	9,000	↑ 6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675	6,550	6,353	↑ 66.9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0kg	66,667	62,000	↑ 2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000	53,917	61,232	↑ 8.9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20kg	19,800	13,800	↓ 1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600	22,100	21,553	↓ 8.1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30kg	435,000	435,000	↓ 27.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2,000	601,000	476,167	↓ 8.6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0kg	34,800	35,800	↑ 13.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9,600	30,550	37,920	↓ 8.2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3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0	130,000	130,000	↓ 30.8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20kg	15,000	14,400	↑ 1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600	13,400	19,733	↓ 24.0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20kg	48,600	49,000	↑ 1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400	41,700	30,777	↑ 57.9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kg	1,840	1,780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00	1,770	1,871	↓ 1.7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5kg	18,200	24,200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650	17,500	20,317	↓ 10.4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개	18,600	20,000	↑ 3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900	14,100	13,387	↑ 38.9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0kg	30,000	30,800	↓ 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3,150	30,550	26,017	↑ 15.3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5kg	21,600	27,800	↓ 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800	23,900	18,073	↑ 19.5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0kg	36,800	31,000	↓ 1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450	42,000	36,801	0.0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5kg	43,000	41,200	↓ 8.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300	46,950	38,520	↑ 11.6

참다래(국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0kg	36,400	35,600	↑ 17.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1,000	30,483	↑ 19.4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00g	8,928	9,103	↑ 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56	8,512	7,842	↑ 13.8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kg	5,028	5,031	↑ 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05	5,024	5,195	↓ 3.2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30kg	490,000	490,000	↓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5,000	495,400	510,867	↓ 4.1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2kg	14,200	15,000	↑ 9.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400	13,000	12,733	↑ 11.5

새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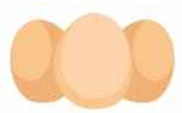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2kg	7,800	7,800	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250	7,800	7,867	↓ 0.9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00g	1,796	1,762	↑ 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54	1,757	1,935	↓ 7.2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30개	5,392	5,417	↑ 5.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531	5,111	5,673	↓ 5.0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09)	1주일전 (12/02)	전년대비	
1L	2,615	2,615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4	2,621	2,547	↑	2.7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12. 09. 기준 / 단위: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938	5,928	5,691	↑ 0.2	↑ 4.3
거세	6,818	6,752	6,449	↑ 1.0	↑ 5.7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61	3,256	3,056	↑ 0.2	↑ 6.7
수	3,933	3,848	3,548	↑ 2.2	↑ 10.9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26	3,315	3,67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3	↓ 9.6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31	411	26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9	↑ 63.3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40	338	31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6	↑ 7.6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842	975	1,42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3.6	↓ 40.7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204	1,190	86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2	↑ 39.8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367	2,367	2,43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2.7

*자료 출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겨울철 닭, 온도와 환기 관리가 중요해

- 병아리 1주령까지 33~35도 유지...폭설 예보 시 사료 · 연료량 파악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양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 닭은 주령에 따라 적정 온·습도가 달라 각 사육단계에 맞는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 닭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항온동물이다. 하지만 겨울철 닭장의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사료 먹는 양이 늘고 생산성은 줄기 때문에 적정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
- 특히, 병아리는 추위에 약해 1주령 이내에는 닭장 온도(병아리 높이 측정)를 33~35도(℃)로 유지하도록 신경 쓰며, 병아리의 행동을 자주 관찰해 온도가 알맞은지 확인한다.
- 육계(고기용 닭)는 닭장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적온(20도)일 때보다 사료 먹는 양이 10% 이상 늘고 사료 효율은 약 22% 떨어지게 된다.
- 산란계(알 낳는 닭)의 성계(큰 닭)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 강하지만 닭장 안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산란율과 산란량이 20% 이상 크게 줄어든다.
- 닭장 지붕과 벽에 틈을 확인하고 보온 덮개를 설치해 열 손실을 막고 난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겨울철 닭장은 밀폐된 환경에서 난방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조해지거나 공기가 오염되기 쉽다.
- 병아리는 초기 3일령까지 습도를 60~70%로, 육추(7~10일령) 동안은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닭장 안이 건조하면 병아리는 탈수나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바닥에 물을 뿌리거나 가습기 등을 이용해 알맞은 습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 겨울철 적절한 환기는 닭장 안의 습도를 조절하고, 유해가스,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하여 질병과 스트레스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다.
- 기습 한파와 폭설로 인해 사료 공급과 난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농장주는 일기예보에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 폭설 예보가 있다면 미리 사료와 연료량을 파악해 두고, 급수관이 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가금연구소장은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적절한 사양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농장주가 수시로 점검해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물 ‘여수 돌산갓’, 종 다양성 확보 기술 개발

- 중앙-지방자치단체 협업... 지역 명품 토종채소로 육성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수의 특산품인 돌산갓의 종 다양성 확보 기술을 개발했다.
- 갓은 식욕을 자극하고 카로티노이드 활성화 물질이 많아 노화 방지와 항암,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있다. 특히, 돌산갓은 알싸한 맛과 연한 식감이 특징인 청갓으로 김치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 일반 갓은 내한성이 높아 잎에 털이 많고 자색을 띤다. 자색이 없는 초록 잎은 톡 쏘는 매운 맛이 적어 고품질 돌산갓 생산을 위한 소재 개발이 필요했다.
- 농촌진흥청은 지역특산물 연구를 위해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여 종의 돌산갓을 분양받아 생육 초기부터 자색이 거의 발현하지 않고 잎 모양이 길고 연한 자원을 이용해 소포자 배양했다.
- 그동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 2007년부터 갓을 지역 토종채소로 키우려 했으나, 유전자원의 다양성 부족으로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다.
- 갓의 반수체 유전형은 AB인데, 자연 배양 중 배수화 돼 AABB로 바뀔 확률이 매우 낮아 소포자배양 시 갓 유전형의 배수화가 되도록 콜히친 처리 농도와 시기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이렇게 개발된 돌산갓 95개 계통을 대상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분석하고, 톡 쏘는 매운맛에 관여하는 시니그린 함량이 높은 품종들을 선발했다.
- 이 계통들은 매운 맛이 강화된 청갓 품종으로 개발 또는 품종 육종 모본으로 활용돼 지역특산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기상재해 강한 6미터 높이의 새 온실 모델 개발

- 내재해 규격 승인 절차 없이 지을 수 있어 비용 · 시간 절약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기상재해에 강해 농업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벤로형 비닐 온실 모델’을 개발했다.
- 벤로형 온실은 유럽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전한 연동식 온실의 하나로, 온실 1동에 지붕이 2개 이상이다.
- 처마 높이(측고)가 높고 지붕에 환기창이 많아 열 완충 능력이 뛰어나다.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을 사계절 재배에 알맞다.
- 온난화로 벤로형 온실 설치를 원하는 농가가 늘고 있지만, 현재 고시된 내재해형 연동 비닐 온실은 대부분 온실 1동에 아치형 지붕 한 개(1-2W형), 높이는 5.4m 이하인 모델이다.
- 이에 농업인이 측고 6m 정도의 벤로형 온실을 지으려면 온실 구조계산서와 설계도, 시방서 등을 작성해 내재해 규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번에 개발한 온실은 폭 8m, 측고가 6m다. 온실 1동에 지붕이 2개가 되도록 설계해 환기 효율을 높였다. 유리온실에서 사용되는 형태(랙-피니언)의 천창을 도입했다.
- 방풍벽이 있는지 없는지, 또 풍속이 낮은 지역을 고려해 풍속을 1초당 30m대, 40m대로 구분해 총 4종으로 만들었다.
- 일반적으로 온실이 높을수록 구조 안전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 모델은 높이는 높이고 내재해 설계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도 맞췄다.
-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우스 기둥, 서까래 등 부재규격과 설치 간격을 정하고, 중방은 작물 무게(15kg/m²)와 설비 무게(39kg/m²)를 견디는 구조(트러스)로 설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연말연시 전남 축산물 유통 안전 강화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12월 한 달 소·돼지고기 등 무작위 수거검사 -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축산물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전남에서 유통되는 축산물 집중 수거검사에 들어간다.
- 수거검사 대상 품목은 전남 축산물 판매업소의 시판 또는 보관 중인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다. 130건 이상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 검사 항목은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미생물검사, 한우/비한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우 유전자 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 전반이다. 부적합 제품은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 정지영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연말연시 모임이 많은 시기를 앞두고 다양한 축산물 수거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도록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단계에서 자체 수거검사를 해 전남 축산물 및 가공품의 신뢰성을 높ی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종자 가공처리기술 국산화로 종자 부가가치 향상

-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외국 의존도가 높은 종자가공처리 3대 기술 중 하나인 종자 필름코팅 소재와 기술 및 장비의 국산화·고도화에 성공했다.
- 이는 종자 가공처리 기술 국산화를 위해 2016년부터 진행된 국립종자원, (주)신농, (주)노루홀딩스 등 7개 기관의 공동연구 성과다.
- 국산 기술을 이용한 종자 필름코팅 소재는 외산 대비 약 1/4 가격으로 상용화되어 현재 신젠타 등 10여개 종자회사에 판매되고 있으며,
- 종자 필름코팅 장비도 기존 시제품의 성능을 개선하여 내년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종자코팅의 최고 기술 중 하나인 펠렛코팅의 국내 기술 수준은 시작단계로 선진국 대비 약 10% 수준에서 과제 수행을 통해 현재 50%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 종자의 발아세 및 발아율 향상을 위한 프라이밍 기술은 초음파를 이용한 친환경적 처리방법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대량 처리가 가능한 산업용 가공처리기기의 성능 개선 후 내년도 제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외에 비파괴 종자선별 기술, 종자소독처리 기술 등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가공처리기술 연구도 병행 중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태풍 피해벼 매입량 늘어 쌀값 인상 견인

- 전남도 건의로 정부 피해벼 전량 매입하고 가격도 높여 농민 호응 -

- 전라남도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 피해벼 매입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 쌀값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11월 말 현재까지 태풍 피해벼 1만 5천200톤을 매입했다. 매입 등급은 잠정등외A 등급이 98%, 잠정등외B 등급이 2%로 나타났다. 태풍 피해벼 매입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격리 효과가 있어 미질 향상과 함께 쌀값 상승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10월 25일 80kg 가마당 18만 8천476원이던 쌀값이 11월 25일 19만 204원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이처럼 피해벼 매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농업인이 피해벼를 정상벼와 별도로 수매해도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피해벼 잠정등외A 등급은 수확기 쌀값 19만 원을 가정할 경우 1등 가격(6만5,769원)의 77%인 5만 569원을 받을 수 있다.
-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초 태풍으로 벼 쓰러짐(도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벼 전량 매입과 매입가격 인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잠정등외A는 공공비축미 1등 가격의 77%, 잠정등외B는 64%, 잠정등외C는 51%로 전량 매입하기로 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 공공비축미곡 매입도 순조롭게 진행돼 11월 말 현재 10만 4천400t을 매입해 계획(12만 4천t) 대비 84%를 마쳤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수출 다변화 온힘

- 17개 나라 수출 프로세서통관 절차 등 소개 수출 가이드북 발간 -

- 전라남도는 농수산물식품 수출국 확대를 위해 전 세계 17개 나라의 수출 프로세서 및 통관 절차 등을 소개한 ‘농수산물식품 수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 수출 가이드북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각국의 비관세 장벽 등 유무형의 어려움이 많은데다,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작됐다.
- 총 473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전 세계 17개국의 국가 개황 ▲경제지표, 각국의 시장 및 소비자 특성 ▲국가별 수출프로세서 및 통관 절차 ▲라벨링 및 위생규정 ▲주요 인증정보 등을 담았다. 또한 배, 유자 파프리카 등을 비롯한 농산물 39종과 김, 전복, 톳, 미역 등의 수산물 35종 총 74개 품목에 대한 ▲HS코드 ▲관세율을 비롯해 74개 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출현황 등도 포함됐다. 17개 나라는 일본, 미국, 중국, 대만, 베트남,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필리핀, 영국, 멕시코, UAE다.
- 전라남도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을 도내 22개 시군 수출 관련 부서와 수출 초보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해외 박람회 참가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참다래 품종 구별, 이파리 한 장이면 충분해요

- 유전자 표지로 30품종 정확히 판별... 품종 보호 활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참다래(키위) 품종을 묘목 상태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과수는 과일이 달리지 않은 1~2년생의 어린나무(묘목) 형태로 거래·유통되기 때문에 눈으로 품종을 정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 이 때문에 다른 품종이 섞이거나 품종 진위 논란이 발생하는 등 묘목 생산자와 농업인 간의 분쟁 소지가 큰 실정이다.
- 이번에 개발한 참다래 분자표지 다중검정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참다래 품종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 참다래 잎 조직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 분자표지를 조합·비교함으로써 ‘제시골드’, ‘제시그린’ 등 20종의 주요 국산 품종과 ‘헤이워드’, ‘홍양’ 등 10종의 외국 도입 품종을 구별할 수 있다.
- 간단한 실험 기기(PCR 기기, 아가로즈젤 전기영동장치)만 갖춰졌다면 분석은 묘목의 잎과 가지 등 검정 조직, 검정 시기에 상관없이 30품종을 판별하는 데 하루면 충분하다.
- 이번 기술은 과수 묘목 단계에서 품종 진위 논란으로 인한 분쟁 해결과 국내 육성 품종 보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농촌진흥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이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로 오이 품종 육성 기간 단축

- 육종 기간 6년→3년, 민간 이전 마쳐... 경쟁력 강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오이 품종 육성 기간을 3년 이하로 크게 줄일 수 있는 첨단 육종기술을 개발하고, 주식회사 농우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 전통적으로 오이 품종 개발은 우수한 품종에 한두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여교배 방식을 활용한다. 그러나, 품종 개발을 마칠 때까지 6년~8년간 긴 시간이 걸렸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오이 유전체의 정보를 분석한 대량 분자표지 세트를 활용하면 여교배 육종 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 연구진은 오이의 길이와 색, 더위를 잘 견디는 성질 등 다양한 형질 특성을 갖는 핵심 계통 38개를 선발했다. 이 염기서열을 분석해 327개의 분자표지 세트를 만들었다.
- 분자표지를 활용하면 어린 식물체 단계에서 육종가가 원하는 특정 형질의 우수 계통을 선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육종 기간을 줄여 효율적인 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
- 형태가 다른 품종은 물론, 비슷한 형태의 품종을 구별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 이번 오이 대량 분자표지 세트는 육종을 위해 산업체에 먼저 기술을 이전하고, 앞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도 이전해 배추와 무처럼 기업의 품종 분석 서비스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한국산 유제품, 베트남 소비자 만족도 높아

- 품질 · 위생 · 안전성 인식 좋아... 경쟁력 확인 -

- 농촌진흥청(김경규 청장)은 베트남 소비자 10명 중 9명이 한국산 유제품에 만족하며, 가장 큰 이유로는 ‘품질’을 꼽았다고 밝혔다.
- 베트남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현지 시장과 소비 분석으로 효과적인 유제품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 베트남의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18kg으로, 한국(55kg), 말레이시아(51kg), 태국(28kg)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 구입해 본 한국산 유제품으로는 분유가 39.6%로 가장 많았고, 흰 우유 30.2%, 가공유 15%, 요구르트 9.5% 순이었다.
- 한국산 유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 56.9%, 매우 만족 30.6%, 보통 12.5%로 모든 응답자가 ‘보통 이상’이었다. 이유로는 품질(40.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가격(25.5%)과 위생·안전성(24.2%), 맛(7.6%)이 뒤를 이었다.
- 앞으로 구매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구입하겠다(72.3%)’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유는 역시 품질(32.3%) 때문으로 나타났다.
- 다시 말해, 베트남 소비자는 한국산 유제품에 대해 품질과 위생·안전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류문화가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로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산 유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현지 유통 시 국내 업체들과 협력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활성화 노력 •

- 황규석 차장, 4일 광주서 열린 'GAP코리아 심포지엄' 참석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국민을 위한 안심 농산물 제공의 기반이 되는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인증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GAP 인증 제도는 농산물의 재배, 수확과 수확 후 관리, 저장, 유통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없애거나 줄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농촌진흥청은 GAP인증을 원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 GAP 실천 단지 육성 시범사업, 대장균 검출기 개발보급 등을 통해 GAP 인증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황규석 차장은 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AP 코리아 심포지엄'에 참석해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GAP인증 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있는 소비자 단체 회원들을 격려했다.
- 이 자리에서 GAP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역할을 소개하고, 심포지엄(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모아 식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농장 방문 •

- 5일 곤충 사육농가 찾아 현장 소통...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방문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곤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의약 곤충 연구개발과 곤충 사육농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장은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곤충 사육농가를 찾아 사육환경과 유통현황 등을 살펴본 뒤 곤충 사육농가의 어려움과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들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농촌진흥청이 곤충 사육농가의 경쟁력과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2018)’에 선정된 곳이다.
- 농촌진흥청장은 농가 방문을 마친 후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농산물안전분석실, 스마트농업 시범(테스트베드) 교육장 등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상황 등을 살폈다.
-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수확한 농작물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식물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성분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스마트농업 시범 교육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농업인을 위한 실용적인 스마트농업 교육,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과 기술보급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 김 청장은 “지역 내 농산물 안전성분석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의 정착과 지역먹거리(로컬푸드) 확산,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을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축산농장 관리, '똑똑한 농장 축사로'에서 하세요

- 한우리 시스템 새로운 명칭 확정... 메인 화면 대폭 개편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축산농장 종합지원시스템 이름을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로 새롭게 변경해 서비스에 나선다.
- 기존 '한우리'라는 명칭은 특정 축종에만 국한된 표현으로 인식되어 종합관리 시스템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름을 바꾸게 됐다.
- 새로운 이름 '축사로'에서 '로(路)'는 '길', '방향' 등의 긍정적인 의미와 미래 지향적인 축산을 나타낸다.
- '똑똑한 농장'은 축산농가에 유용한(똑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농장 관련 각종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또한 '똑똑'과 비슷한 발음의 영어 표현 'Talk-Talk'을 함께 사용해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이라는 중의적인 뜻을 표현했다.
- 이번 명칭 변경은 온라인 공모로 추진했으며, 총 216명이 참여해 442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한 최우수작 2건을 조합하고 일부 변형해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 시스템 명칭 변경과 함께 '축사로' 누리집 메인 화면도 개편했다.
- 기존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메뉴를 볼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처음 접속한 사용자(비회원)도 전체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새로 추가한 농가생산성 조회 메뉴에서는 ‘축사로’ 사용 농가와 전체 농가의 출하성적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회원 농가(본인)와 출하성적 비교도 가능하다. 현재는 한우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축사로’에서 제공하는 가축사육기상정보, 원스톱 한우 개량정보, 젖소 씨수소 유전능력 정보 등의 서비스와 ‘농사로(농업기술포털)’ 정보서비스에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 메뉴를 배치했다.
- 농촌진흥청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축사로’는 여러 축산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체정보, 혈통정보, 등급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 질의응답 게시판, 온라인 자문단 등을 통해 농가와 소통하면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새롭게 단장한 ‘축사로’ 시스템은 신규 주소(chuksaro.nias.go.kr)와 기존 주소(hanwoori.nias.go.kr)로 모두 접속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올해 농업 재해대응 분야 성과 점검

- 내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추진한 자연재해, 병해충 분야 사업성과와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2020년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2019 재해·병해충 분야 종합평가회(이하 평가회)’를 연다
- 5~6일까지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평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국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재해·병해충 담당 관계관이 참석한다.
- 올해 농업 재해대응 관련 대표 현안은 중국에서 날아온 열대거세미나방 등 돌발해충 확산, 검역 금지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의 집중 발생,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병 등이다.
- 농촌진흥청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휴대전화 문자 발송(총49회, 597만9천 건)과 품목별 현장기술지원단 운영(72개반, 203명)과 태풍 피해지역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한 방제활동은 물론 식물방제관 교육과 농업인·전정사(가치치기 전문가) 대상 소독요령 교육, 사전약제 방제, 중앙-지방 합동예찰(미리 살펴봄)등을 실시했다.
- 이번 평가회에서는 전국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경진대회도 진행한다.



- 각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제출한 사례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선정한 9개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찰·방제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표적 우수사례는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추진 사례, 돌발해충 기관 간 협업방제, 드론 활용 병해충 예찰방제 등이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내년에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종합대책 추진, 미세먼지 비상 발령 시 농업분야 실행 방안 등 농업인이 체감하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귀리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치료에 효과 있다

- 농진청, 귀리 속 함유물질서 개선 효과 확인 -

- 귀리에만 있는 독자적 성분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귀리의 ‘아베난쓰라마이드’ 물질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조지훈, 김형석 교수 연구팀)과 함께 한 동물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Avn-C의 항치매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베난쓰라마이드(Avenanthramide, 이하 Avn)는 현재까지 보고된 곡물 중에는 유일하게 귀리에만 있는 물질이다. 전 세계 치매 환자의 60~70%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추산되며, 이는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β -amyloid)로 인해 신경세포가 손상돼 기억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알츠하이머를 유도한 쥐(Tg2576, 5X FAD)에 Avn-C 단일(표준) 물질 6mg/kg을 2주간 먹여 실험한 결과, 해마에서 억제되었던 기억 형성의 기작을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쥐(5X FAD)의 행동 평가(모리스 수중 미로 기억·물체 인식 기억)에서도 정상 수준의 기억력을 보였으며, 치매 증상의 하나로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도 완화됐다.



- 국산 품종인 ‘대양’에는 Avn-C가 평균 89.8 μ g/g으로, 다른 국산 귀리나 외국산 귀리 가공제품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다.
- ‘대양’ 품종을 2~3일간 발아한 추출물에서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정제한 다음 Avn-C를 31mg/g 함유한 분획물을 제조했다.
- 이 분획물이 알츠하이머를 유도한 쥐(Tg2576)의 해마에서 억제된 기억 형성의 기작(장기강화, Long-Term Potentiation/LTP)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도 확인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특허(전남대학교 공동, 제 10-1819658호)를 마치고 미국, 유럽, 중국 특허도 출원해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조승호 중부작물부장은 “귀리의 지난해 수입량은 4만 5,000톤(2018)으로 2013년보다 911% 늘었다. 국내 소비 증가로 재배 면적도 느는 추세여서 이번 연구 결과가 우리 품종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의약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확보로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의 폭을 넓혀가겠다.”라고 말하였다.
- 앞서 농촌진흥청의 국산 귀리 ‘대양’ 품종의 원료곡 생산 지원으로 올해 국내 재배 면적은 약 5ha로 늘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이해도 높여

- 준비업체 교육으로 의무시행 대비 -

- 전라남도는 5일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컨설팅 교육을 가졌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이다. 가정에서 소비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처리돼야 한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5일부터 본격 의무 시행된다.
- 영업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허가를 받은 업체나 준비중인 업체는 HACCP 기준서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따라 전라남도에서는 허가를 받은 4곳과 허가를 준비중인 22곳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HACCP 기준서 마련과 운용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해당营业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HACCP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 영업허가를 받은 4곳은 한국양계조합무안유통센터(무안), 녹색계란(나주), 그린영농조합법인(무안), 금곡계란(목포)이다. 나주 9곳, 화순 4곳, 영암 3곳, 담양곡성구례무안함평장성 각 1곳씩에서 영업을 준비 중이다.
-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HACCP 교육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2020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신청하세요

- 기금지원 개인 1억, 법인 5억, 유통업체 10억까지, 연 1% -

- 전라남도는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 등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 원을 5일부터 41일간 신청 받는다.
-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도내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등) 및 입점자이며, 용자 한도는 개인 1억 원, 법인 5억 원, 유통업체 1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자금 중 운영자금은 원료 구입,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비용, 판매장 임차료 등과 같이 소득 증대에 쓰이는 사업이다.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의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 자금 상환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과수사업에 한해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하는 조건이다.
- 용자를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업대상자와 지원자금에 대해 서류(현지)심사 등을 거쳐 2020년 2월말 최종 확정 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고병원성 AI 중점방역대책 점검

- AI가 없는 한해 되도록, 전남에서부터 농장단위 차단방역 철저 -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타 지역에서 야생조류 저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16건) 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5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AI 중점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김 지사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12월은 도내 겨울철새 서식 개체가 가장 많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로 철새도래지(18개소)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며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시군, 농협의 소독차량을 총 동원, 도래지 주변도로 및 인근 가금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 김 지사는 또 “농장단위 차단방역에서 축산차량이 가장 위험하므로 농장 내 축산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축사 내 온도관리,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하면서 종오리 농장의 산란율폐사를 확인, SNS를 통한 AI 방역요령 지속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 한편,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 10월부터 고병원 AI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22개소), 농장 방역초소 등(19개소), 오리농장(84호)에 대해 사육제한(휴지기)에 들어가 AI 감염율을 낮추기 위한 강력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AI 차단방역 강화

- 철새도래지 집중 소독야생조류 검사로 선제적 차단방역 -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는 점을 감안해 철새도래지와 닭오리 사육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광역방제기 2대와 소형 방제차량 4대를 활용해 주요 철새도래지 18개소의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 소독, 철새 도래지 분변 예찰검사 등 야생조류에 대한 촘촘한 방역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 고병원성 AI는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후 사람, 차량, 철새 등에 의해 가금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철새도래지 인접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차량통제와 주변도로 소독, 생석회 살포 등을 펴고 있다.
- 가금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야생조류 분변이나 사체와 접촉을 피하고 방문 후 차량과 의복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 또한 가금농장에서는 기온 하강에 따른 소독시설 결빙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설비를 미리 정비하고 소독약품의 유효기간 및 적정 희석 배율을 확인해야 한다. 농장 출입통제 안내판과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해 비치하는 등 농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출처 : 전라남도





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나눔 행사 가져 •

- 김장김치로 소외계층에 따뜻한 온기 전달 -

- 한국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회장 주옥선)는 지역의 소외계층과의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2019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4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가졌다.
- 도입원 및 시군연합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300포기 배추로 담근 맛있는 김장김치가 각 지역의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 등 30여 곳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 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랑의 쌀 나누기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 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주옥선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아 추운 겨울을 지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처럼 꾸준히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화순군, 2일부터 2019년 '농민수당' 지급

- 7418명에게 화순사랑상품권 30만 원 지급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일부터 농협화순군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 지급 대상자는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의 지역농협과 화순군지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30만 원을 수령하면 된다.
-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30만 원, 월 10만 원) 지급 총액은 22억 2540만 원이다.
-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독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 밀도 준수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군은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인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서 하면 된다.
- 군은 지난 11월 20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자 8350명 중 7418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 심의위원회는 화순 주소지 요건 충족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작물 실제 경작과 가축 사육 여부, 중복 신청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 원 이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출처 : 화순군



화순군, '귀농귀촌 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 2년 연속 최우수상 받아...4일 전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대회 열려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19년 전남 귀농귀촌 업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아 '귀농귀촌하기 좋은 명품 화순'의 위상을 높였다.
- 화순군은 4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년 귀농어귀촌 어울림대회'에서 귀농귀촌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귀농귀촌 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과 포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 전남 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7개 분야 2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화순군은 귀농 가구 유치 실적, 전담조직 운영, 민관 협력사업, 귀농귀촌 정보제공, 농촌 정착 프로그램 운영,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화합지원 등 23개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군은 올해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물론 귀농인의 집 조성,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농가 주택 수리비,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귀농귀촌동호회와 마을잔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민 이주 희망자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데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협의회는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인 무인 로컬 팜 마켓, 귀농귀촌학교 등을 운영하며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 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왔다.



- 귀농어귀촌 어울림대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라남도 귀농어귀촌인연합회(회장 양동철)가 주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충곤 화순군수,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등 내외 귀빈과 귀농어귀촌인 7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순의 지리적 여건, 우수한 의료·교육·교통 환경 등이 귀농귀촌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우리군의 지원 정책이 상승효과를 내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체감도 높은 귀농귀촌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도시민 유치와 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화순군





영암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홍보 박차

-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 전국 한우협회 영암군지부 회원 대상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교육 실시 -

- 영암군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 이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배출시설 허가규모축산농가(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 등)의 경우 6개월 1회, 신고규모축산농가(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는 12개월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을 만족하는 퇴비를 퇴액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하며, 검사결과 및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영암군은 27일 영암축협 대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여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 교육을 진행한 김용조 영암군 축산위생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들도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부숙도 관리대상 축산농가 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0%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한달에 한번이상 퇴비를 교반하여 미생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출처 : 영암군





영암군, 2020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 신청

- 용자사업 지원 희망자 12월 19일까지 해당 읍·면에 사업신청 -

- 영암군은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을 홍보하여 오는 12월 19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 할 계획이다.
- 녹색축산기금 용자사업은 친환경축산육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을 위해 200억 원을 연리 1% 저리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친환경축산물인증, HACCP 인증 등),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이며, 축산 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 농업인(법인) 20억 원, 축산물 유통·가공업체 30억 원이고, 운영자금 농업인(법인) 2억 원, 축산물 유통·가공업체 3억 원이다.
- 자금 상환조건은 시설자금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용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 및 사업비는 2020년 1월 중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 영암군 축산관계자는 “친환경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의 용자를 대폭 지원하는 만큼 사업 희망자는 꼭 기한을 지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영암군





무안군, 2019 힐링푸드 실용화 교육 개강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3일 건강을 중요시 하는 현대인의 소비패턴에 부합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고 건강음식 조리법을 전수하고자 ‘2019 힐링푸드 실용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수강생 26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부문 4회와 향토·퓨전음식 부문 3회로 총 7회(매주 화·수요일)로 진행된다.
- 힐링푸드 개강식인 3일에는 사찰음식 부문에 정효스님의 가지표고구이, 감자타락죽, 고수도토리묵 만들기 교육이 실시되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특히, 수강생 중에는 무안군가족센터의 협조로 지역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참여 하여 다른 수강생들과 소통·화합의 자리 또한 마련 되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무안군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 속에서 향후 교육 진행시 다문화 이주 여성들 또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힐링푸드를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무안군





장성군, “벼 정부보급종 종자, 20일까지 신청하세요”

- 장성군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2020년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 군은 국립종자원의 벼 정부보급종 공급계획에 따라 새일미와 신동진, 동진찰, 일미, 백옥찰, 미품, 영호진미 등 7품종 72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 정부보급종은 생산 단계별로 철저히 품질관리 된 우량종자로,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어 발아율이 높다. 또 수확된 쌀의 품질 향상은 물론 수확량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 정부보급종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신청기간 중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희망품종과 수량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종자의 소요량은 1헥타르 당 50kg으로 신청은 20kg 들이 포대 단위로 한다.
- 이와 함께 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보급종 가격과 수매가 차액을 1만 원씩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농가 부담을 줄여 보급종 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장성군은 벼농사에 필요한 상토, 비료, 육묘상자 처리제, 액상규산, 경화장, 병해충 공동방제, 곡물 건조기, 지게차 등을 맞춤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남도 내 단보 당 쌀 생산량 1위를 차지했다.

*출처 : 장성군





완도군,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에 힘쓴다!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안정적인 쌀 생산·유통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 결과,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고품질 쌀 유통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산물벼 건조·저장시설(DSC) 신축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에는 사일로(500톤) 3기 등이 갖춰지게 되며, 고품질의 미곡 확보 및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또한 최근 톤백 수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고금면 영부리에 사업비 5억 원(군비 4억, 완도농협 1억)을 투입하여 675㎡ 규모의 정부양곡 톤백 창고를 건립하였다.
- 이에 40kg 소형포대에서 800kg 단위 대형 포대방식으로 바뀌면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해져 인력을 크게 절감하고, 입·출고 작업이 편리하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한편 완도군은 농협RPC와 SW그린라이프, 전라미향과 협약식을 체결하여 완도군연합농협RPC에서 생산된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지난 2월 미국 뉴저지 주로 3.2톤을 수출했다.
- 할랄 인증을 받은 고품질의 완도 쌀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미국 시장 등에 진출함으로써 완도자연그대로 쌀의 경쟁력 강화와 청정지역 완도 쌀의 강점을 해외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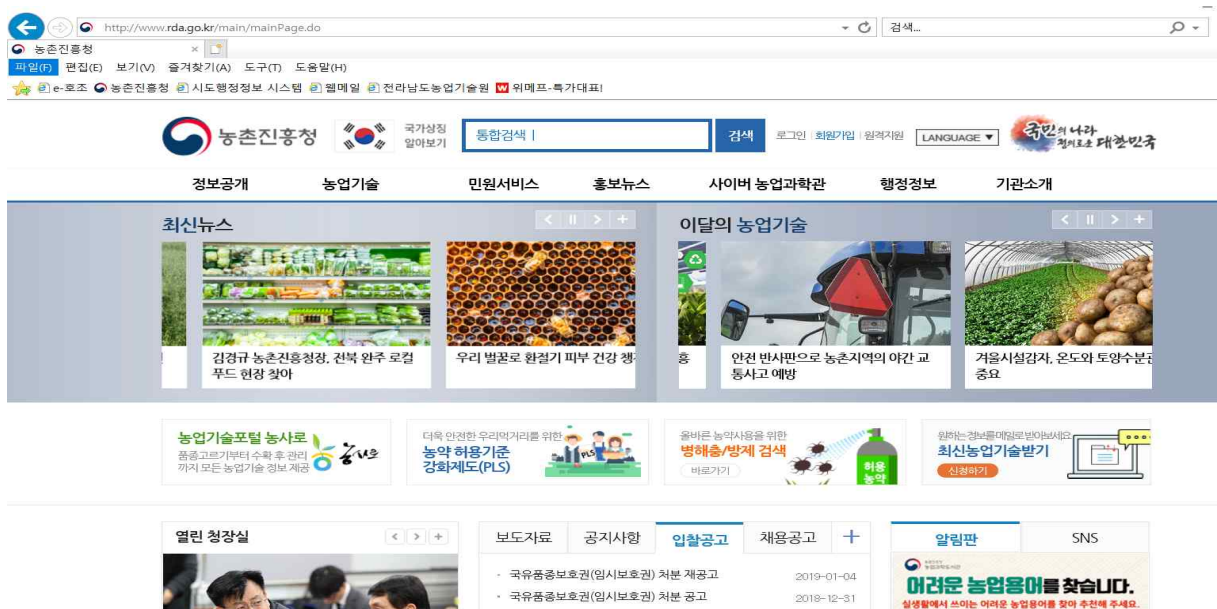
*출처 : 완도군





농촌진흥청

- 농사에 필요한 재배기술은 농촌진흥청(www.rda.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정보공개, 농업기술, 민원서비스, 홍보뉴스, 사이버농업과학관, 행정정보, 기관소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홍보뉴스의 새소식에서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설명/해명, 주요행사계획, 인물/동정, 농촌지방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 홍보뉴스의 사이버 구독에서는 간행물 e-book(그린매거진, 월간농업기술), 뉴스레터(RDA뉴스레터)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린매거진과 월간농업기술은 월별로 발간되며, RDA뉴스레터는 매주 전파되어 확인할 수 있다.





농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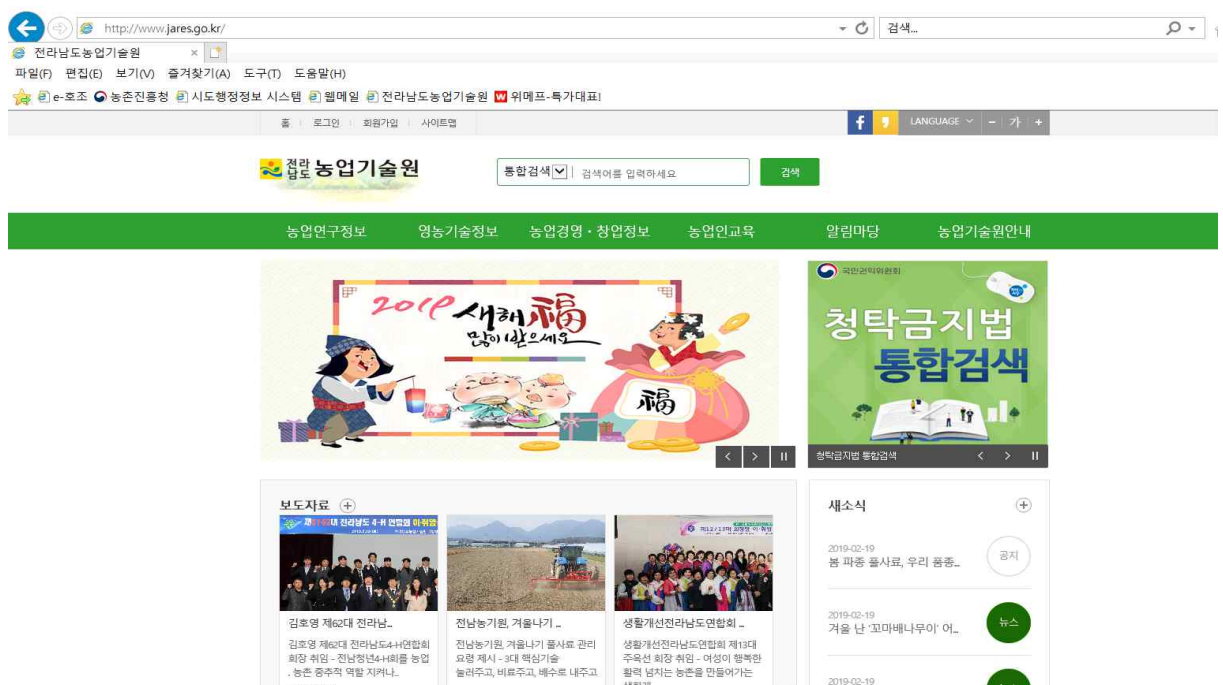
- 농사에 필요한 재배기술은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사로에서는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자재에서는 품종, 농약, 비료 농기계,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농자재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 영농기술에서는 농업기술, 영농활용정보, 친환경유기농업, 연구성과정보, 농업도서정보, 해외농업, 수출농업, 농업환경, 축산분뇨, 곤충표본관, 빅데이터활용기술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업경영에서는 농산물소득정보, 우수사례, 경영기술, 농식품소비트렌드, 농축산물가격, 경제성분석기준자료,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 농식품산업동향,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Nongsaro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categories like '농자재' (Agricultural Materials), '영농기술' (Agricultural Technology), '농업경영' (Agricultural Management), '교육' (Education), '지역정보' (Regional Information), and '생활문화' (Lifestyle Culture). Below this, there's a section titled '이달의 농업기술' (Agricultural Technology of the Month) featuring three main articles: '안전 반사판으로 농촌지역의 야...' (Safety Reflective Plates for Rural Areas), '겨울시설감자, 온도와 토양수분...' (Winter Facility Potatoes, Temperature and Soil Moisture), and '2월 이달의 식재료' (February's Monthly Food Materials). To the right, there are two blue boxes: one for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PLS)' (Pesticide Allowance Standard Strengthening System) and another for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위한 병해충/농약 검색' (Disease/Pest/Insect Search for Proper Pesticide Use). At the bottom, there's a banner for '농업기술 더하기 나누기' (Add and Share Agricultural Technology) and a '참여하기' (Participate) button.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농사에 필요한 재배기술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연구정보, 영농기술정보, 농업경영·창업정보, 농업인교육, 알림마당, 농업기술원안내로 분류되어 있으며,
- 영농기술정보에서는 주간농사정보, 작목별기술정보, 병해충발생정보, 친환경농업정보, 기술보급동향, 병해충사진검색, 품종정보, 농업기술동영상, 품목관리메뉴얼, 유통/가공 가격동향, 생산비절감 경영메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업인교육에서는 월별교육일정, 농업인전문기술교육, 농업인교육, 농기계교육, 경영·정보화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알림마당에서는 보도자료, 농업기술뉴스, 전남농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산타마을의 비리소동 (1)





주간 263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62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